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1년 6월 30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배만호 | 편집인 김중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hgo@naver.com)

학사 일정

6.20(월)~7.19(화)	2학기 교수계획표 입력
6.21(화)	하계휴가 시작
6.21(화)~27(월)	1학기 성적입력
6.21(화)~7.18(월)	여름 계절수업(4주)
7.5(화)	후기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8.3(수)~5(금)	2학기 수강신청
8.19(금)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23(화)~26(금)	2학기 재학생 현금등록
9.1(목)	2학기 개강
9.1(화)~7(수)	2학기 수강정정

인문대학 전체교수회의 개최



교원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계획(안)에 대한 입장

부산대학교 교수회에서 정부의 “성과급적 연봉제”에 관해 논의한 결과, 6월 말로 예정된 “교수업적 평가자료(국비성과급)”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단과대학별로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인문대학에서는 지난 4월 20일(수)과 4월 28일(목), 연속 2회에 걸친 학과장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의견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학과장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면, (1) 교수회에서 6월말로 예정된 “교수업적 평가자료(국비성과급)” 제출 거부를 단과대학별로 결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교수회 평의회에서 결의한 “교수업적 평가자료(국비성과급)” 제출 거부에 대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단과대학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나 설명해 달라는 것,

(2) 정부에서 강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인문대학의 경우 이미 제 1차 전체교수회의에서 수용불가를 결의한 바 있고, 부산대학교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10여 년 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교수업적 평가(국비성과급) 자료제출”은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3)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로 8월 말 지급예정인 “국비성과급” 거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교수회의 노력은 심분 이해하지만, 결연한 의지가 없을 경우 연말에 가서 “국비성과급”이 다시 국고로 귀속될 시점에 허겁지겁 “성과급”을 수령한다면 오히려 정부에 빌미를 줄 수 있지 않은가? (4) “국비성과급”을 거부한다면 추후 “기성회 성과급”은 어떻게 되는가? (5) 학내에서도 단과별로 행동 통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6) “교수업적 평가자료(국비성과급)”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5월 3일(화) 인문대학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교수회 측의 설명과 입장을 청취한 후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본부의 안을 거부하기로 하였다(성원 62명, 참석 42명, 위임 20명).

- (1)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성과연봉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하고 있어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 (2) “고등교육법 개정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정부는 전폭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립대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대폭 부여해야 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는 플러스섬이 아닌 제로섬 게임이므로 부득이 시행할 경우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의 교원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3) 국교련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성과연봉제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인문대학은 향후 교수회와 국교련과 공동보조를 취하고자 한다.
- (4) 교원의 업적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방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Contents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개최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회장 배만호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장)가 국·공립대 인문대학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6일(목)부터 5월 28일(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는 상남국제회관 웅비홀에서 열렸는데, 회의에 앞서 김인세 총장의 환영사와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장으로 있는 사학과 김동철 교수가 「조선 후기 한일 관계사의 중심지인 부산」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다. 이어서 전년도 감사 보고와 차기 주관교 선정 및 4명의 운영위원과 1명의 감사 선출이 있었다. 인문대학장들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했지만 국립대 법인화 및 학장 직선제 폐지 반대, 그리고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인문대학장 협의회 명의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언론에 발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각 대학의 교수회와 국교련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 세계인문학 포럼 간담회

'2011 한-유네스코 세계인문학 포럼' (The World Humanities Forum)이 오는 11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광역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네스코 공식행사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근 인문학에 대한 국내외 높은 관심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환경파괴, 기후변화, 국가간, 민족간 분쟁과 갈등 등의 도전과제(Global Issues) 해결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혜의 집결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의해 준비되었다. 이번 포럼은 '다문화세계에서의 보편주의' (Universalism in a Multicultural World)라는 대주제를 설정하고 '다문화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포럼이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데 토대가 된 우리나라 인문학의 전통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일(수) 오후 4시 부산 시청사 11층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회의실에서 지역 인문학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는 배만호 인문대학장, 김동철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 김용규 인문학연구소장, 정출현 점필재연구소장

등 4명이 참석하여 세계인문학 포럼 행사 소개 및 관련 제안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남송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수우 백년어서원 및 허아람 인디고서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인문대교수 해외문화 탐방



매년 1학기 말에 있었던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인문대 교직원 43명이 2011년 6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대만 타이베이 일원을 다녀왔다. 객원교수를 포함하여 40명의 교수와 행정실 직원 3명 등 총 43명이 참여한 이번 해외 문화탐방의 첫째 날에는 중국 5,000년 역사의 보고(寶庫)로 세계 4대 박물관의 하나인 '국립고궁박물관'을 관람하고, 대만 타이베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용산사(龍山寺)와 화시지에 야시장(華西街 夜市)을 둘러보았다. 둘째 날에는 타이베이에서 자강호 열차를 타고 화련으로 이동하여,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승지인 태로각(太魯閣) 협곡을 방문했다. 태로각 협곡은 대만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의 산물로 국제수준의 자연국가공원으로 공인받고 있다. 태로각 협곡에 이어 자모교(字母橋)를 둘러본 다음, 원주민 아미족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2박 3일 동안의 해외 문화탐방 성과를 짚어 본 다음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했다.

2011학년도 대학원 학술상 시상식

연구 활동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주는 2011학년도 대학원 학술상 시상식이 5월 20일(금) 본관 301호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박사과정(대학원 학술상) 9명과 석사과정(대학원 우수논문상) 2명 등 총 11명이었으며, 박사과정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석사과정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인문대학에서는 영어영문학과 박사졸업생인 류춘희 선생(지도교수: 배만호)이 대학원 학술상을 받았다.

미래내골 한담(閑談)

강명관

삼십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여름방학 중이었다. 무슨 일로 학교에 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별로 갈 곳이 없어서 학교에 나왔을 것이다. 집보다 학교가 훨씬 더 시원했으니 말이다. 이원섭이 번역한 『당시(唐詩)』 한 권을 돌돌 말아 쥐고 인문관 옆 미래내골 벤치에 앉아 만나절을 보냈다. 지금 인문관 1층 학생회실 바로 아래다.

방학 중이라 교원연수를 받으러 나온 교사들 몇이 점심을 먹은 뒤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을 뿐이었고, 달리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계곡물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하고 깨끗했다. 발을 담구고 앉았다. 요란한 매미소리에 도리어 사위가 적막했고, 한낮의 햇볕을 받아 달아오른 운동장에 눈이 부시었다. 한적한 대낮이었다.

이 한 장면만은 삼십 몇 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같은 자리에 다시 앉아보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다. 이 선명한 기억의 이유는 무엇인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 시절 부산대학이 가졌던 공간의 넉넉함과 거기에 유래한 한적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과 견주어보면 학교는 정말 넉넉하고 한적했다. 인문관 앞을 지나는 길 아래는 지금 대학본부동과 제10공학관, 11공학관, 기계기술연구동 모두 없었고, 시원스럽게 펼쳐진 운동장만이 있을 뿐이었다. 흥물스런 효원굿플러스 건물도 당연히 없었다. 지금 제1사범관과 박물관 아래에는 작은 개울이 흘렀고, 생물관 앞은 돌로 지은 집이 한 채 있었다. 그곳은 지대가 낮아 징검다리를 타고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은 온통 논이었다. 연구도서관과 약학대학을 잇는 선 위는 모두 숲이었다.

학교는 숲의 일부였을 뿐이다. 숲이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학교도 느리게 움직였다. 오전 10시가 되어야 학생들이 드문드문 운동장을 가로질러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 안을 하루 싸돌아다녀도 차를 만날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 따로 주차장이란 것도 없었다. 그러니 학교 안의 길도 여유가 있을 수밖에.

세월은 화살처럼 휩 하고 지나갔다. 학생이었던 나 자신이 장년을 지난 지 하마 오래다. 학교 역시 엄청나게 변했다. 곳곳에 건물이 빼곡히 들어찼다. 제1사범관 옆쪽과 위쪽 모두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했다. 장마철에 하루만에 숲속에 버섯이 솟듯 없던 건물이 해마다 올라갔다. 최근에는 한동안 과학분관이라 불렀던 구도서관을 헐고 높고 거창한 건설관을 지었다. 저 위쪽 테니스장 옆에는 상과대학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라 한다. 이

모든 건물이 숲은 지우면서 들어섰다. 특히 지난 8년 사이에 사라진 숲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댄다면 미래내골도 언젠가 주차장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급박한 변화를 흔히 발전과 성장이란 휘황한 언어로 찬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필연적 이유가 있었다. 그 결과 대학이 커지고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이다. 한데, 뜬금없이 그 옛날 미래내골에 앉아서 한적하게 『당시』를 외던 시절이 기억 속에 지워지기는커녕 몸서리치게 그리운 것은 어떤 일인가.

생각해 보건대, 발전과 성장을 호언하면서 우리가 내팽개치고 짓밟은 것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 발전과 성장으로 인해 대학의 구성원들은 현재 짙은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싸구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콘크리트 ‘하꼬방’이 빼곡히 들어찬 우리 대학의 공간은 과연 학생과 교수와 교직원에게 어떤 정신적 위안을 베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쉬면서 숨을 고르고 과거를 돌아볼 때가 되었건만, 아직도 발전과 성장, 그리고 경쟁을 내세우는 소리는 그칠 줄 모른다.

아서라, 이제 다시는 그 한적한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발전과 성장, 경쟁의 신화에 포로가 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미래내골의 부질없는 이야기, 곧 미래내골 한담이라 하지 않았던가.



필자 :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
조선 후기 한문학 전공

| 알림 | 지난 호(4호) 소식지의 <미래내 단상>에 인쇄 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주지의 저서 『武夷精舍雜詠』이 『武夷精舍雜』으로 “詠” 자가 탈자된 상태로 인쇄되었음을 바로잡습니다.

학과/연구소 소식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철학과, 고고학과(이상 5개 학과)는 5월 28일(토) 넉넉한 터에서 합동 체전을 열어 학과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과별 단합을 다졌다. 국어국문학과는 농구, 이어달리기, 발야구, 축구의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합 1위를 하였다. 한편, 같은 날(28일) 인문관 412호에서는 한글학회 부산지회가 주최하는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가 있었다. 부산지역 각 대학 학생들이 연구한 논문 8편을 발표했는데, 국어국문학과 4학년 손마정 학생이 '사동 파생의 타동성과 사동의 개념, 이라는 논문으로 논문주제상을 수상했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3월 24일(목)~26일(토)에 걸쳐 교수와 학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땅끝마을, 다산초당, 녹우당, 조각공원, 진주성 등을 답사하는 현장학습을 마련해 답사지역에 대한 조사, 발표와 아울러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중문인 한마당을 열었다. 5월 14일에는 중문과 일반대학원생 2명, 교육대학원생 5명이 풍성한 내용으로 학위논문을 발표하여 전공과 논문에 대한 신입생들의 이해를 돕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교내 대외교류본부에서 지원하는 '학과/대학단위 학생파견사업'에 중문과가 정규/계절 학기에 모두 선정되어 이번 여름방학과 2학기에 중문과 학생 및 중문과 부·복수전공 학생들을 북경외국어대학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는 4월 27일(수) 동래산성 동문에서 "특강 및 교수·학생 분임토의"를 개최하였다. 교수와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일본문학의 한 공간을 깊이 있게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뒤이은 퀴즈와 게임도 빠질 수 없는 재미를 제공했다.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5월 2일(월)에는 체전 한마당이 열렸는데, 발야구,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타과와의 친선경기를 마련하여 지친 체력에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일문학과 학술 발표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5월 20일(금)에 개최되어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및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연구한 테마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문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어일문학과 학술잡지 『일어일문논고』 (6집)를 발간하였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BK21 영상산업 번역전문 인력양성사업단」은 4월과 5월, 「번역과 문화연구」(부산대 영어교육과 정혜옥), 「번역학과 번역 철학」(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향)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의 번역학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5월 5일(목)에는 신축대운동장에서 인



문대 체전의 일환으로 중어중문학과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열어 두 학과의 친선과 단합을 도모하였다. 5월 11일(수)에는 대동제 행사로 미리내골 다리에 주막을 개설하여 스승의 날 감사행사와 아울러 졸업생 및 동문초대 학과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5월 28일(토)에는 영문과 오픈캠퍼스를 개최하여 고교생 및 학부모를 초대하여 학과 소개, 학생회 소개 및 진로상담 간담회를 가졌다.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축제기간인 5월 11일(수)~12일(목) 이틀 동안 넉터 광장에서 불문베이커리를 운영, 와플과 슬러시를 판매하면서 선후배, 졸업생간의 우애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학과에서는 하계방학 중 프랑스 브장송 대학으로 파견할 학생을 모집·선발하였는데, 20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하여 경쟁했다.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독어독문학과



5월21일(토) 장승터에서 Mai-Fest(독일오월축제)가 열렸다. 배만호 인문대학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부산 소재 5개 대학(부산대, 해양대, 동아대, 부산외대, 경성대) 및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독일어 전공 학생들이 공연을 하였다. 독일전통춤, 독일가곡, 독일어 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으며, 독일인이 직접 만든 독일 수제소시지와 독일맥주 크롬바흐(Krombach)가 제공되었다. 매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Mai-Fest는 독일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한편, 5월 28일(토) 넉터에서 열린 인문대 합동 체전에서 독문과는 종합순위 3등을 하였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는 5월 2일(월) 전체 학과 생들이 참여한 체육대회를 열었다. 50명이 넘는 노문인들이 축구, 농구, 발야구, 족구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는 4월 21일(목) 넉넉한 터에서 한문학과 가족체전을 하였다. 대동제 기간 중에는 (5/11~5/12) 한문학과 학술축전을 열어 「점필재와 그의 문도들」이라는 제하의 학생들 발표와 「점필재의 스승」(경성대학교 정경주 교수에 대한 초청특강을 마련했다. 12일 오후에는 열세 번째를 맞는 한문학과 생년제가 인문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어 만20세를 맞이한 부산대 학부생들을 축하하였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 노어노문, 일어일문 3개 학과의 연합체전이 5월 2일(월)에 열렸다. 남자축구, 여자발야구, 남자농구, 남녀혼합계주를 겨루었는데 동학과는 발야구에서 우승하고 축구에서 준우승을 하였다. 5월 10일(월)~11일(화)에는 인문대 앞마당에 대동제 주막을 열어 학과교수, 조교, 재학생 등 40여명의 어울림 터를 마련하였다. 5월 20일(금) 인문대 시습관에서 학과 교수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사로 일하고 있는 언어정보학과 99학번 장승한 동문의 취업특강이 있었다.

사학과



5월 11일(수)~13일(금) 학교축제 기간에 사학과에서는 주막(11일) 및 정기답사지였던 북경 관련 전시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 5월 27일(금)에는 인문학연구소 및 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중국인민대학의 장운비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 생태문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해외명사초청강연회를 열었는데 100여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다. 5월 28일(토),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오픈캠퍼스는 학과설명회, 답사 수업체험, 사학과 대학생 선배와의 대화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방문하였다.

철학과



3월과 4월에는 철학과의 학부 졸업논문과 대학원의 연구논문 및 학위청구 예비논문 발표회가 있었으며, 5월 20일(금)~21일(토)에는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부딪힘과 나눔에 대한 물음」이라는 주제로 학술 교류 세미나가 열렸다. 4월과 5월에 걸쳐 마련된 세 차례의 철학과 콜로키움의 주제는 「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4/1: 최희봉-강원대), 「신경윤리의 철학적 쟁점과 전망」(4/28: 이화여대 김효은), 「참회(懺悔, metanoia), 어떻게 할 것인가?」(5/26: 부산대 권서용)였다. 한편, 5월 27일(금)에는 홍성복 선배(철학과 76학번)가 후원하는 제1회 「동문 선배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힘내라 철인」이 사미헌에서 마련되었다.

고고학과

고고학과에서는 3월 29일(화)~4월 1일(금) 나흘간 서울·경기 일대로 정기준계답사를 다녀왔다. 교수 및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97명이 참가하였으며 서울·경기지역의 주요 유적 및 발굴현장을 답사하였다. 4월 5일(화)~8일(금)까지 4일 동안 학부 2학년생 24명은 김해 진례 두산요에서 토기를 직접 만들고 소성하는 토기소성실습을 했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에서 그동안 주관해온 <월례발표회>를 <인문학연구소

연속기획특강>(이하 연속기획특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이 진행하면서 「어떤 상상의 공동체? -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진태원), 「세계문학과 보편성」(5/12: 부산외국어대 이탈리아어과 박상진)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마련하였다. 3월 26일(토) 영광도서에서는 「2011년 한국사회의 지형과 문학의 좌표」라는 주제로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와 오늘의 문예비평이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HK 고전번역+비교문화학연구단]의 연례 학술발표회도 4월~6월간의 예정대로 열려 고전과 문화의 역사적 변천을 탐색하고 문화연구와 고전연구의 현재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5월 27일(금)~28일(토)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정전(canon)과 비교문학의 과제」라는 주제 하에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와 한국비교문화학회, 그리고 부산외대 비교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비교문화학회(KCLA)의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월 11일(월)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다시 방문한 복원자: 로컬적 장소 발굴과 내전 후 베이루트 사례」라는 제목으로 디나 알카심 교수(미국 U. C. Irvine 비교문화학과)의 초청세미나가 있었으며, 4월 15일(금)에는 미국 듀크대 역사학과 교수였던 아리프 디릭(Arif Dirlik)의 「글로벌화, 토착주의, 사회운동 그리고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강연이 있었다. 연례 학술세미나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 차례 마련되었으며, 4월 28일(목)에는 「한미동맹과 확장 역제력」이라는 제목의 연구소 초청강연회(Ralph A. Cossa, President of the Pacific Forum CSIS in Honolulu)가 있었다. 6월 23일(목)~24일(금) 상남국제회관에서는 「로컬리티와 공간정치」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려 Jeff Melpas 교수(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대 철학과)를 위시한 10인이 발표를 하였다. 6월과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인문학, 부산을 읽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마련한다.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는 4월 28일(목) 「밀양 아리랑 대축제」 개막행사로 시청 대강당에서 제9회 점필재 김종직 선생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충의·지덕·정순의 3대 정신을 기본목적으로 묶은 밀양의 종합문화예술 축제이며 경상남도 우수 문화축제로서, 밀양의 대표적 인물인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매년 아리랑 대축제의 서막을 여는 행사이다. 점필재 선생은 조선의 사림시대를 연 우리 사상사와 문학사, 문명사의 종사(宗師)이다. 이 학술대회는 점필재 선생의 人文精神과 그 교육적 실천의 찬란한 결실이라 할 수 있는 士林의 젊은 제자들에게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선의 인문정신을 주도한 점필재 선생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대중들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점필재연구소에서는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이번 여름방학에도 한문학 연구자 또는 번역전문가를 꿈꾸는 학부생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번역학교와, 고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와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하는 밀양 인문고전 아카데미를 연다.

동문 소식

동문회 조직 (2010.1.1 ~ 2011.12.31)

동문회장

홍성복 (철학 76)

동문회 고문

박태권(국문 48), 박근우(영문 52), 손선익(사학 53),
조현규(영문 54), 진문희(국문 56), 박홍길(국문 58),
김승동(철학 59), 강소근(철학 67)

수석 부회장

권태하(국문 77), 황영순(영문 80)

당연직 부회장

한익훈(사학 64), 이현홍(국문 70), 박만준(철학 70),
배만호 (영문 74), 주환수(독문 79), 이무진(일문 82),
장형기(중문 83), 고창현(불문 84), 양은경(고고 89),
배부기(한문 90), 박동근(언어 94), 조영은(노문 95)

선임 부회장

윤병태(국문 66), 안상길(국문 76), 김기섭(사학 76),
유수근(영문 78), 손성용(독문 78), 조한제(영문 79),
전광호(불문 79), 배정우(철학 79), 박용환(불문 80),
주환명(영문 81), 남경우(독문 81), 남덕현(중문 82),
강영훈(일문 82), 조인실(일문 82), 김쌍우(국문 83),
강상욱(사학 83), 이성권(철학 88)

동문회 감사

김필순(국문 66), 손영삼(철학 78)

자문위원

박동춘(사학 46), 안동환(영문 68), 공옥식(국문 74)

당연직 이사

박미숙(독문 79), 이진광(독문 79), 한태문(국문 81),
장광진(영문 81), 이종봉(사학 81), 이찬엽(중문 83),
노익석(불문 85), 김민정(일문 90), 강대호(고고 90),
김창준(철학 91), 임영선(노문 95)

사무국장

김아가다 (국문 76)

사무차장

박형준(사학 84), 노익석(불문 85)

2011년도 인문대 동문회 이사회

2011년도 동문회 이사회가 6월 8일(수) 오후 7시 서면 사미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인문대학의 발전방안과 특히, 7월 9일(토)~10일(일)까지 1박 2일간 예정된 2011년도 하계 워크숍 행사에 관해 논의하였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는 인문대학 부학장인 김종수 교수(독문 84, 부산대 독문과 교수)가 특강을 맡기로 하였다. 작년에도 7월 10일부터 11일 까지 1박 2일 동안 전남 화순 도곡 스파랜드에서 인문대 동문회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김해진 특임차관 초청 특강



2011년 5월 13일(금) 오후 3시, 인문대학 시습관에서 김해진(독문 79) 특임차관의 특강이 있었다. 자랑스러운 인문대 동문으로 소개된 바 있는 김해진 차관은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모교를 방문, 「인생은 선택과 도전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김해진 동문은 독어독문학과 79학번으로 입학하여 1985년 2월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86년 경향신문에 입사하여 사회부장과 정치부장을 역임했고, 1990년대 초 정치부 기자 시절 민중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재오 현 특임장관과 인연을 맺은 뒤 지금껏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 김동문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자신이 살아 왔던 인생 역정을 들려주어 참석한 후배 동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동문은 앞으로 모교 인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국외파견

김준수(철학과) | 미국 시카고대학

12개월(2010.8.15~2011.8.14)

이재봉(국어국문학과) |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12개월(2011.2.10~2012.2.9)

연구년 A

윤일환(영어영문학과) | 미국 하버드대학 옌칭 연구소

11개월(2010.8.1~2011.6.30)

연구년 B

전광호(불어불문학과) | 한국, 프랑스, 1년(2010.9.1~2011.8.31)

김기섭(사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김동철(사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이영철(철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박선자(국어국문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교수동정

| **이헌홍** 교수와 조태흠 교수(이상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김성진 교수(한문학과)는 6월 21일(화)~25일(토) 중국에서 열린 제2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 **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는 4월 21일(목)~23일(토)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일(渡日)하여 자료조사 및 문헌 확인 활동을 하였다.

| **김용규** 교수(영어영문학과)는 '로버트 J. C. 영의 트리컨티넨탈리즘과 포스트식민의 급진화' (『비평과 이론』 제15권 2호, 2010년 가을/겨울호) 라는 논문으로 제3회 한국 비평이론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 **이재성** 교수(영어영문학과)는 지난 5월 1일(일)~3일(화) 텍사스 A&M 대학 칼리지스테이션에서 북미 레비나스학회 주최로 열린 북미 레비나스학회 2011 연례학회에 참석, '레비나스 윤리학에서의 "타자"와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불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 **이상도** 교수(영어영문학과, 국제언어교육원장)와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 국제언어교육원 센터장)는 5월 22일(일)~25일(수) 공무국외여행으로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 호치민 국가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과 한국학센터와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김동철** 교수(사학과, 민족문화연구소장)는 5월 3일(금)~13일(월)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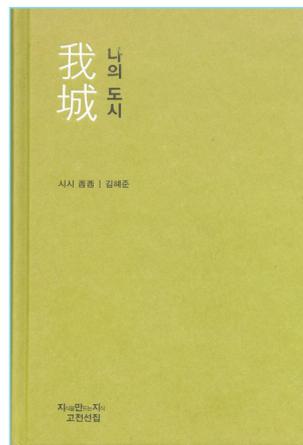
빌레펠트대학교 ZIF(학제간연구소)와의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2010년에 체결된 두 연구소의 학술교류 협정을 재확인하고 교류를 진작하였다.

| **양은경** 교수(고고학과)는 4월 27일(수)~5월 2일(목) 중국소재 한국고대사 관련 금석문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참고문헌을 수집하게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신간소개

『나의 도시』(我城)

시시(西西) 지음, 김혜준 옮김, 서울: 지만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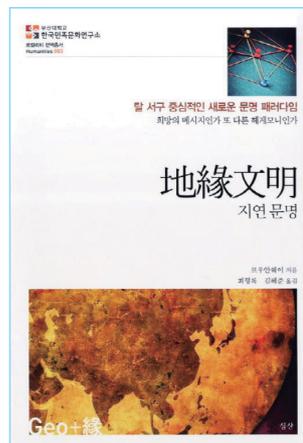


김혜준(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시시(西西)가 쓴 『나의 도시』(我城)를 우리말로 옮긴 역서를 출간했다.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가 지만지출판사와 공동으로 기획한 스물네 권의 작품 가운데, 1차분으로 이 책을 비롯해 총 7종이 출간되었다. 이들 작품은 지난 100년간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 및 세계 각지에서 중

국어로 발표된 대표적인 작품이면서, 현재까지 한국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다. 홍콩을 대표하는 여성작가인 시시(1938~)는 『나의 도시』라는 작품에서 1970년대의 홍콩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홍콩에 대한 사랑과 홍콩인으로서의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은 홍콩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동화적 상상과 과장이라는 방식을 사용해 아주 긍정적으로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연문명』

르우안웨이(Ruan Wei) 지음, 최형목/김혜준 옮김, 서울: 심산출판사, 2011



김혜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르우안웨이(Ruan Wei)의 『지연문명』(심산출판사)을 공역한 역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인류의 문명에 대해 지리·자연적 인접성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문명 내지는 인류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의 각도에서 다룬 저작이다. 저자에 따르면 '지연문명'은 지리적 연분 또는 지리적 인연을 기반으로 하는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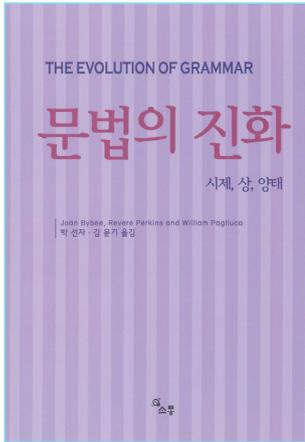
명이란 뜻이다. 기존의 문명관이 서양 중심적 문명관이라며 강하게

교수동정/신간소개

부정하는 그의 관점은 아마도 합리성과 엄밀성 면에서는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지구화가 강조되면서 자칫 하면 더욱더 경시될 수도 있는 주변부 문화 내지는 지역 문화의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의 진화 — 시제, 상, 양태』

J. Bybee, R. Perkins, W. Pagliuca 지음, 박선자/김문기 옮김, 서울: 소통,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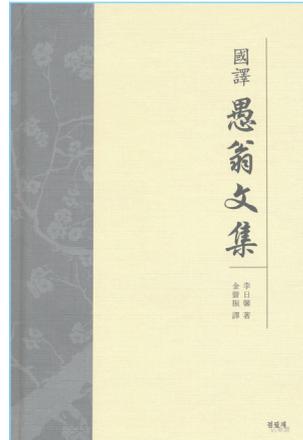
박선자 교수(국어국문학과)는 언어학자 Joan Bybee, Revere Perkins, William Pagliuca 등이 1994년에 저술한 『문법의 진화』(The Evolution of Grammar)를 공역한 역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부제에서 보듯이 세계의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시제', '상', '양태'의 문법범주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서로 무관한

언어들의 범(凡)언어적 교차 비교를 통하여 문법화를 밝힌다. 아울러 '참조 문법(reference grammars)'으로 언어들의 문법범주가 연구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우옹문집(愚翁文集)』

우옹 이일형(李日馨) 지음, 김성진 옮김, 부산: 점필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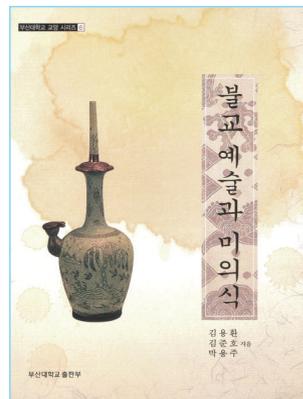
김성진 교수(한문학과)는 조선조 순조 때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지낸 우옹 이일형(李日馨, 1743~1812)선생의 문집인 『우옹문집』(愚翁文集)을 우리말로 옮겼다. 우옹 공의 6대손인 이방희 선생이 최근 발간한 『우옹문집』 국역판은 옹의 유고인 시(詩) 서



(書)와 만(輓) 잠(箴) 전(傳) 설(說) 등의 원문을 국역한 내용이다. 김성진 교수가 국역한 이번 우옹문집은 1700년대 후반에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에 입향한 우옹 옹의 시를 비롯한 각종 유묵을 국역한 내용으로 모두 296쪽이다. 펴낸이는 전주이씨 진남공파 경주문중회 우천서당이다.

『불교예술과 미의식』

김용환/김준호/박용주 공저,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11



김용환 교수(철학과)는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불교예술과 미의식』을 공저로 펴냈다. 이 책은 한국 불교미술의 이해를 통해, 그 속에 구현되어 있는 한국적 아름다움과 미의식, 그 개성과 정체성의 실체를 보여준다. 불교미술은 한국미술사의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

운데는 불교의 철학과 더불어 인도와 중국 등의 국제적 양식의 영향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만약 한국미술사에 불교미술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우리민족이 가진 뛰어난 미적 자질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한국 불교미술의 이해를 통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천년 이전에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간 조상들의 따스한 숨결과 손길, 그리고 멋을 시공을 뛰어 넘어 만날 수 있다.

